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상종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노숙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클레멘트 코스(clement course¹⁾)에 철학 강사로 참여했던 고병권은 철학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대학생들과 이들이 다르다는 걸 지적한다. 대학생들은 대체로 철학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려는 반면, 클레멘트 코스 참여자들은 철학을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삶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 개념과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철학을 접한다고 해도, 사회적 취약계층 사람들은 철학을 ‘앎’이 아닌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이다.

사실, 철학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철학이 제시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물음 중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질문일 것이다. 고대 철학자 중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인간이 자신을 존재 수준에서 차별화시키는 삶의 목적을 각성하고, 이 목적을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가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실천적인 태도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현대 철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와 같은 실존철학자들은 인간을 반성 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문제시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는데, 이처럼 ‘존재 물

1) 노숙인, 약물 중독자, 재소자, 저소득 빈민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1995년 미국에서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05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음'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유하는 철학은 '존재' 그 자체를 탐색하는 본질주의 철학과는 그 궤도가 다르다.

이 글은 철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같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삶'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의 철학은 어떻게 가능하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2018년 출간된 '이론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인 박병준과 홍경자는 “철학함이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존재 양식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자기를 선사함으로써 자기를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1부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아헨바흐Achenbach의 말을 빌려 이 시대는 개념과 이론을 중시하는 철학에서 철학을 하는 철학자의 본질 물음으로 방향을 전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론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철학적 관심을 옮기는 철학적 전회가 필요하다. 또한, 저자들은 철학상담이 실천 중심의 철학을 구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 그 근거로서 철학자는 철학상담을 통해 내담자와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일상에서 겪는 가치의 혼란, 의미의 상실 등으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은 이 같은 철학적인 대화를 통해 새롭게 세계관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3부 ‘철학상담의 방법론’에서는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한 철학적 탐구에 있어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형이상학적 초월을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먼저, 현상학에서는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내담자의 현상학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활세계에서 의식의 반성 없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내담자들은 자연적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적 태도로는 경험 지각 세계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진정한 본질 세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내담자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고통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철학자들이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고통의 형이상학적 근거와 근원을 밝히는 것도 철학적 대화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철학적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이란 현상에 주목하게 하고 그 사태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내담자들이 현상학적 에포케epoché에 따른 본질직관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편, 2부에서는 ‘공감적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 사

실 이 같은 ‘공감적 대화’의 중요성은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자들은 이론이나 개념에 기반한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공감적 대화’, 내지는 ‘인격적 대화’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담자의 자기 이해 과정에서 철학자들은 이들이 삶의 과정에서 봉착하는 사태 그 자체를 현상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석학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책의 저자인 박병준과 홍경자가 제시하는 이 같은 내용보다도,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삶’과 ‘삶’에 대한 저자들의 사유의 틀이었다. 저자들은 인간을 삶과 의지의 상호작용 안에서 행위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또한, 삶에 대한 인식 수행은 이론적 지식을 지향하며, 의지의 수행은 그것의 실천적 행위를 이끄는 데, 이 둘은 인간의 정신 실행 안에서 통합되고 종합되며, 이런 통합적인 정신작용 안에서 인간은 자기를 실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이란 ‘삶’을 통해 ‘삶’을 기획하고 통합하여 완성해 가는 존재라는 저자들의 인간관은 필자의 인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소개한 고병권처럼 필자도 클레멘트 코스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형이상학적 초월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중에서 4남매의 엄마이자 한부모 가장이었던 40대 초반 여성 사례가 필자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2011년도에 그녀가 쓴 글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 꼭 막혀있던 내 귀와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건 철학 시간을 통해서였다. 다소 지루할 것 같았던 철학은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 외 문학과 역사 등 배움의 즐거움이 또 다른 행복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좀 더 배우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심화반에 들어갔고 기초반과는 달리 토론 형태의 수업을 받으면서 내면 깊이 쌓여있던 상처들을 끄집어내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난날의 삶이 나에게 잘못이 있거나, 나라는 사람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과 판단에 현혹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보내주는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에게 인문학이라는 것은 진실되게 살려는 진지한 노력이다. ‘진실’과 ‘진지한 노력’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고 있다. 매일 매일의 사소한 것들과 매 순간 판단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수도 없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결실과 보상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 믿는다...

읽글에서 그녀는 시간과 역사성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하고 통일함으로써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또한, 의식적으로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회복’을 위해 시련 속에서도 의지를 앞세워 미래로 나가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그녀가 쓴 글을 읽는 동안에 필자는 하이데거의 ‘가능 존재’란 개념을 떠올렸다. 하이데거는 숙명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세상 속에 던져진 자신을 통해 자신을 통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회복이란 지나간 것을 도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한 물 간 것으로 붙잡아매는 것도 아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회복은 불안 속에서도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걸 의미한다. 이른바 저소득층이자 저학력자인 40대 초년 여성이 쓴 짧은 글 속에서 이처럼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의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필자의 기억을 소환해 보면, 클레멘트 코스에 참여자에게 철학은 ‘마음의 동굴’로 들어갈 용기를 불러일으킨 안내자였으며, 철학 강사들은 그들과 함께 ‘공감적 대화’, 즉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철학자들이었다. 그리고, 철학적 대화를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 확신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철학 강사들은 테세우스가 지하 미로의 세계로 들어가 미노타우르스를 제거한 후 살아나올 수 있도록 유도등 역할을 한 ‘아리아드네의 실’과도 같았다.

1999년 제작된 영화 ‘매트릭스Matrix’는 아포리아¹⁾ 상태에 놓인 주인공의 자기 이해 서사를 다루고 있다. 모피어스Morpheus 도움으로 주인공인 앤더슨Anderson이 인공 지능 시스템인 매트릭스 밖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고, 이후 그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매트릭스로 돌아가 그들과 대결하면서 본래적 자기The one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영화가 주는 메시지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알레고리 서사를 차용한 매트릭스를 보면 철학자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플라톤에게 철학자는 동굴 밖으로 나와 혼자 유유자적하는 사람이 아니듯, 오늘날의 철학자도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철학의 실천적 역할로서 내담자의 안내자이자 길동무로서 철학자의 삶은 어쩌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일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고병권, 『추방과 탈주』, 서울: 그린비, 2009
- 구연상,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에 대한 강의』, 서울: 채륜, 2011
- 김원익, 『신화, 인간을 말하다』, 서울: 바다출판사, 2011
- 박병준·홍경자,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서울: 학이시습, 2018
- 장건익, 『철학의 발견』, 일산: 사월의 책, 2013
- 상종열, 「자활참여자의 인문교육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옮김, 길, 2011
- 얼 쇼리스(Earl Shorris), 『희망의 인문학』, 고병헌·임정아 옮김, 이매진, 2009
- 서울시, 『시련을 넘어 희망으로』,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2011